

신인 그룹도, 베테랑 가수도... '하프 앨범'이 트렌드?

(애초 기획했던 앨범을 절반으로 나눈 음반)

그룹 아이콘 데뷔 음반·신승훈 11집 등 두장으로 나눠 시작 두고 연말 추가 발표 사장되는 곡 줄이고 주목도 높이려는 의도

‘하프 앨범’은 트렌드가 될 것인가.

그룹 아이콘이 10월 데뷔 음반을 ‘하프 앨범’ 형식으로 낸 데 이어 신승훈도 11집의 첫 번째 하프 앨범 ‘아이 엠’을 29일 내놓는다. 하프(half) 앨범이란 애초 기획했던 앨범을 ‘절반으로 나눈 음반’이란 의미다. 아이콘과 신승훈은 연내 나란히 나머지 절반도 발표한다. 신승훈과 아이콘이 제시한 하프 앨범은, 정

규앨범에 수록될 곡을 모두 완성시켜놓고 일정한 주제 혹은 목적에 따라 이를 반씩 나눠 담아 낸다. 신승훈은 데뷔 25주년을 맞아 자신의 음악인생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향후 음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앨범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다. 첫 번째 하프 앨범에서는 기존의 음악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트렌드를 입힌 발라드를 선보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추구할 음악성을 바탕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담는다.

아이콘은 수록곡 모두를 주목받겠다는 전략이다. 10여곡을 한꺼번에 담아 발표하면 타이틀곡 한두 곡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사장되는 것이 아쉬워 두 장의 앨범으로 나누어 발

표, 곡마다 주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이에 앞서 국내 대중음악계에는 정규앨범을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이미 ‘파트1’, ‘파트2’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하프 앨범도 ‘정규앨범을 나누어서 낸다’는 의미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식이지만 엄밀히 다르다.

‘파트1·2’ 앨범은 두 음반 사이의 발표 간격이 일정지 않다. 파트1·2는 일정량의 곡을 모은 뒤 우선 내놓는 방식이다. 싸이의 경우 2012년 6집 ‘육갑-파트1’을 냈지만, ‘육갑-파트2’는 오리무중이다.

하프 앨범은 음반 사이의 간격도 짧고, 발표 시기도 미리 확정해둔다. 이미 앨범을 완

성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신승훈은 첫 번째에 이어 11월 초 나머지 하프 앨범 ‘앤 아이 엠’(& I am)을 발표한다. 각각 6곡씩 수록된다. 10월1일 첫 하프 앨범을 낸 아이콘도 애초 11월2일 두 번째를 내기로 했다 뮤직비디오 추가 촬영으로 12월14일로 미뤘다.

이처럼 하프 앨범은 미니앨범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독특한 형식으로 꼽힌다. 모두 CD 시장이 붕괴된 디지털 음원 시대에 ‘앨범’의 의미를 살리고 싶은 노력의 산물이다. 아이콘과 신승훈이 시작한 움직임이 의도대로 대중에 어필한다면 가요계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7년 10월 29일)

‘포크록 선구자’ 한대수 컴백



1968년의 어느 날 밤, 그 유명한 서울 무교동 세시봉 무대에 낯선 청년이 섰다. 방송사 PD였던 MC 이백천이 “뉴욕에서 특별한 손님 오셨다”(1998년 7월 17일자 경향신문)고 소개한 청년은 “장막을 걷어라/나의 좁은 눈으로/이 세상을 더보자/...”(행복의 나라로)라며 노래했다. 절제되지 않은 거친 목소리의 노래는 이내 또래 청춘들을 사로잡았다. 한대수(사진)였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베트남전쟁에 반대하는 물결을 목격한 그는 히피문화와 전도하듯 노래했다. 청춘은 그를 반겼고, 기성의 어른들은 비난을 퍼부으며 추방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7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21년 뒤 바로 오늘, 한대수가 고국의 무대 위에 다시 나왔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유니텔 록 콘서트’였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고국을 떠나 49살의 나이에 돌아왔다. 이날 한대수는 산울림, 사랑과평화, 전인권, 강산에, 크래시, 부활, 황신해밴드 등 장르와 뚜렷한 개성을 달리 하는 록밴드와 가수들 사이에서 ‘행복의 나라로’ 등을 노래했다. 미국의 모던포크와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음악으로 ‘한국 포크록의 선두주자’로 인식된 ‘전설의 가수’를 또 다시 젊은 관객이 환호로 맞았다.

한대수는 1948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핵물리학자 아버지의 실종은 그가 평생 간직해온 예술혼의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사라진 뒤 할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초등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10대 시절을 다시 한국에서 보냈다. 고교 시절 미국에서 아버지와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우물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한 상담교사를 만나 시와 예술에 눈을 떴다. 가요사의 명곡으로 남은 ‘행복의 나라’ 등이 당시 썼던 노래다.

1968년 귀국한 그는 세시봉을 통해 한국의 청춘들을 만났다. ‘별고 먼 길’ ‘고무신’ 등 앨범을 통해 ‘물 좀 주소’ 등 사랑과 자유를 노래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청년문화를 불온시 여긴 정치권력은 그와 그의 노래를 ‘금지’시켰다. ‘고무신’은 발표되기도 전에 마스터테이프가 압수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1976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뉴욕을 본거지 삼아 사진작가와 시인으로도 활동하며 간간히 국내에서도 앨범을 발표한 한대수는 이제 가수로, 예술가로서 아무런 장벽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남긴 또 다른 문화사의 우여곡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ID

‘역주행’ EXID·여자친구 “11월 신곡 발표”

EXID, 복고풍 댄스곡으로 ‘대세 굳히기’ 여자친구도 세번째 음반 ‘신인상 굳히기’

11월 ‘역주행 자매’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걸그룹 EXID와 여자친구다.

EXID가 다음달 컴백을 예고한 가운데 여자친구도 11월 새 음반을 준비 중이다. 두 팀은 모두 공연장 관객이 촬영한 ‘직캠’

으로 차트 역주행의 신화를 썼던 걸그룹. 가요계에서 특별한 ‘역사’를 만든 이들의 동반 활동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EXID는 작년 겨울 자신들에게 스타덤을 안겨준 ‘위아래’와 올해 봄 ‘아 예’를 잇는 신곡을 11월 중순 발표한다. 데뷔 때부터 함께 작업해온 신사동호랭이와 멤버 엘이(L.E)가 함께 만든 복고풍의 댄스곡이다.



여자친구

올해 강력한 신인상 후보로 주목받은 여자친구는 9월, 빗속에서 6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무대를 끝낸 이른바 ‘파당 직캠’으로 큰 화제를 모은 뒤 처음이자, 올해 세 번째 음반을 내놓는다.

이번 음반은 EXID나 여자친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 흥행한다면 ‘대세’로 확실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통련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월 데뷔곡 ‘유리구슬’과 7월 발표한 두 번째 신곡 ‘오늘부터 우리는’이 모두 음원 차트에서 선전을 펼치며 주목할 만한 신인

으로 꼽힌 여자친구는 ‘파당 직캠’으로 엄청난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됐다. 이번 음반의 성과에 따라 여자친구는 ‘2015년 최고의 신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EXID 역시 ‘핫한 걸그룹’에서 ‘대세 걸그룹’으로 굳히기 할 수 있는 기회다. 아직은 그 이름만으로는 경쟁자를 압도할 만큼 중량감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음반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함과 동시에 통련의 발판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면접 | 정유은 기자 sadzoo@donga.com

윤은혜, ‘의상 표절 논란’ 속사정 있나

사전녹화 분량 많아 ‘논란 속 강행’ 오해

의상 표절 논란이 9월 초 불거진 뒤 윤은혜(사진)는 “표절하지 않았다” 외에 지난 두 달 동안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반면 관련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며 쏟아지는 비난을 받았다. 프로그램 종영까지 1회를 앞둔 지금까지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 못

할 속사정이 있는 걸까.

8월29일 4회 방송에서 의상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은혜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지난달 18일 귀국했다. 이후 자택에 머물며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프로그램은 31일 12회로 막을 내린다.

윤은혜는 중국에 갈 때마다 한 회 이상 녹



화에 참여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하지만 몇 주 전에 찍어놓은 녹화 분량이 공개되는 셈이다. 4회가 방송된 후, 표절 논란으로 국내 여론이 등을 돌렸을 당시 윤은혜는 이미 10회와 11회분을 현지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명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많은 시청자의 분량을 녹화해놓은 것이 알려지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웠다. 윤은혜 측 관계자는 28일 “제작사가 먼저 얘기하지 않은 데 우리가 미리 찍어둔 것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논란 속에서도 강행을 했다는 반응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입장 표명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대응과 시기적으로 늦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아예 외면하는 발언은 아니어서 향후 윤은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빅 마우스

●“양현석, 정말 친하니까 응원 없었다.”(가수 겸 연기자 최승현) 28일 웹드라마 ‘시크릿 메시지’ 제작 발표회에서, 소속사 양현석 프로듀서의 응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디디치킨

“천년브랜드 디디치킨” 유행이 아닌 지속성장

가맹점주님들의 매출 만족도가 높은 수익성과 유행을 타지 않는 전국민의 대표 간식 치킨의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답은 바로 디디치킨!!

올라가는 치킨! 맛있는 즐거움! 푸짐함에 대박!

홈세트

광고모델 김민호

(주)디디에프앤비 본사: 서울시 서초구 동선로 20 태화빌딩 3층 중부사업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84-3 보광빌딩 4층

※사업설명회: 매월 2, 4주 월요일 2시 본사 사전예약 02-529-8800

NAVER 검색하기 디디치킨 공식홈페이지

www.ddck.co.kr

축! 디디치킨 300호점 돌파기념~

창업난센스의 시대

트렌드를 읽는 브랜드

가맹비 면제 / 로열티 면제

매출이 저조하십니까? 업종전환을 고민하십니까?

맞춤형 창업가능
자본금에 맞게 창업가능
상권매장형태에 따른 창업가능

안정적인 수익보장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창업

차별화된 메뉴
까르보나라, 허니버터치킨 등 트렌드를 반영한 꾸준한 제품출시!

현업중에 맞는 무료 컨설팅 제공!

창업/문의
☎ 080-924-9999

전매율 100% 재고 NO! 반품률 NO!

위생 YES! 조리간편 YES!

개별포장으로 공급하여 추가 닭손질이 필요없습니다!!